

News

금융 대장주 첫발 뗀 카뱅... 기존 은행과 1차전 주목

국민일보

카뱅, 상장 첫날 '파상'에는 실패했으나 상한가 도달에는 성공하며 유가증권시장 안착...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산업구조와 생태계 재편 중… 한국형 금융교란자로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2금융권,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할듯... 빅테크는 공공의 적

뉴시스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2금융권도 참여 긍정적 검토

은행권도 환영하는 분위기…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이 이용자 유인에도 유리

메타버스 탐색전 돌입한 은행들

ZDNet Korea

미래 주요 고객될 10~20대 고객 타겟… 현 비대면 영업의 일방향성 한계 극복 가능

단기적으로는 영업점을 옮겨가는 수준, 그러나 한국은행 CBDC 개발되면 더 활성화될 가능성

美은행협회 "가상자산 업계와 협력해야 수익 증가"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수탁 및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제공시 수수료 수익 창출 가능… 협력시 새로운 고객 확보 가능성

한시가 급한데 코코본드 발행시기 2023년...보험업법 실효성 지적

연합인포맥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휴가철 영향으로 소폭 상승

파이낸셜뉴스

6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꾸준한 감소추세였으나, 7월 휴가철을 맞아 증가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 확대 및 태풍 북상에 따라 하반기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보험도 구독하는 시대가 왔다... 소비자 응답할까

이코노미스트

한화생명, 업계 최초 구독보험 출시…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와 MZ세대 고객 잡기에 대안될까…

현재로서는 헬스케어 관련 영역만 포인트 지급형 구독보험 출시 가능… 소비자 니즈 커지면 금융당국 규제 변화도 가능할수도…

JP모간, 中서 지분 100% 증권사 설립 첫 허가받아

한국경제

JP모간, 외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100% 지분 가진 증권사 운영, CSRC로부터 공식 허가

중국의 자본시장 문호 확대 신호… 여러 분야에서의 중국 당국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 매수 심리 위축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